

AI영상제서 투자·수출까지… 경북, 글로벌 콘텐츠 허브 도약

‘AI·메타버스 영상제’ 내달 개최
국내 3403편, 해외 1587편 출품
투자상담·수출 지원 프로그램 연계

경북도가 97개국 3403편이 출품된 AI 영상 공모전을 중심으로 오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구미·포항·경산에서 ‘2026 경북 국제 AI·메타버스 영상제’를 개최한다. 올해 영상제에서는 시상식뿐 아니라 투자상담, 수출 지원, 산업 전시와 상영·교류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경북도는 18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시·군 관계자와 영상제 조직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프로그램과 발전 전략을 공개했다. AI 영상 공모전 출품작은 지난해 1075편에서 올해 3403편으로 3배 이상 늘었고, 해외 작품도 72편에서 1587편으로 20배 이상 증가했다.

영상제는 ‘메타버스 수도 경북’ 비전 아래 전국 최초 AI·메타버스 영화제로 출발해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 기관과 협력 범위를 넓혀왔다. 경북도는 공모전 참여 확대와 함께 산업 중심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상제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3화째를 맞는 영상제는 개최 도시별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18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6 경북 국제 AI·메타버스 영상제’ 언론 브리핑에서 주요 프로그램과 발전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산업 특성에 맞춰 운영된다. 구미에서는 AI·가상융합산업을 기반으로 기업과 인재를 연결하고, 포항에서는 AI·VFX 기반 영화·광고 콘텐츠를 다룬다. 경산은 AI와 게임산업을 결합해 지역 게임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기업과 창작자를 위한 시상·지원 사업도 마련됐다. AI 영상 공모전 본선 진출작 39편에는 총 1억 원의 상금을 수여하며 대상은 2000만원으로, 수상작은 해외 진출과도 연계한다.

경북도는 미니게임 콘테스트 시상 이후에도 후속 지원을 통해 게임기업의 경

쟁력을 높이고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투자·수출분야에서는 K-컬처 콘텐츠 제작사 대상 1500억원 규모 펀드 투자상담회와 AI 혁신기업 기술·투자 발표회가 진행된다. 중국 바이트댄스, 일본 세가 등 해외 바이어 20개가 참가하는 경북 게임기업 수출상담회도 열린다.

‘AI 첨대기업 전시관’ 규모는 지난해 23개사에서 34개사로 확대됐다. 도내 기업 10개사와 메타빌드, ADDD 등이 참여한다. 별도로 도내 게임기업 12개사와 지역 4개 대학이 게임 전시·체험관을 운

영하고 게임 관련 교육·진로 탐색을 청년 인재 양성과 연계한다.

경북도는 영상제를 AI·VFX·게임·가상융합산업을 잇는 글로벌 산업 플랫폼으로 육성하고 기존 미국·중국·일본 협력 네트워크를 유럽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참여 국가를 150개국 이상으로 확대하고, 발굴한 창작자·기업의 투자·제작·해외 진출과 지역 대학·기업 연계 실무형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이날 조직위원 위촉식에서는 세이버파트너스 김세연 대표가 조직위원장, 한국영상콘텐츠학회 양경미 회장이 집행위원장, 식품연구소 노희영 대표이사가 고문, 배우 원기준이 대외협력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영상제를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AI 영상제로 확대하고 K-식품을 비롯한 경북의 K-컬처를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영상제를 기반으로 AI·가상융합산업 생태계를 대한민국 최고 수준으로 조성해 경북이 글로벌 AI 콘텐츠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김준환 기자

kih9@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경주시

황성공원에 문화도서관 건립

경주시는 황성공원 일원에 한수원 자사고 대안사업비 787억원을 들여 ‘경주시 복합문화도서관(가칭)’을 조성한다. 전시·기록·교육·도서관 기능을 한곳에 갖춘 연면적 1만 628㎡,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해 2028년 8월 문을 열 계획이다.

시는 지난 14일 공간조성 및 종합운영계획 연구용역 보고회를 열어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바탕으로 시설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지하 1층 ‘경주기록실’에는 경주의 인물·역사·자연과 향토·족보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신라 과학유산 전시공간을 조성한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국립창원대학교

첫 통합 학위 수여식 개최

국립창원대학교가 대학 통합 이후 처음으로 창원·거창·남해 3개 캠퍼스의 학위 수여식을 함께 연다.

국립창원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C WNU가운홀 대강당에서 ‘2025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창원대,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통합 이후 처음 열리는 통합 학위 수여식으로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전 과정 수여가 함께 진행된다.

이날 다중학사체계 전환의 의미를 담아 거창·남해캠퍼스 전문학사 졸업생 대표 등 학위별 대표자에게 직접 학위를 수여하고, 박사학위는 졸업생 전원에게 수여한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부산시설공단

‘에너지의 날’ 광안대교 소등

부산시설공단은 제23회 ‘에너지의 날 in 부산’ 행사에 참여해 오는 21, 22일 이틀간 광안대교 경관 조명을 소등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등은 부산시와 부산에너지시민연대가 공동 주최하는 ‘에너지의 날 in 부산’의 하나로,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절약 실천의 중요성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행사 첫날인 21일 오후 9시부터 5분간, 에너지의 날인 22일에는 전국 동시 소등 행사에 맞춰 오후 9시부터 10분간 광안대교 경관 조명을 각각 소등할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부산시

‘IFAC 세계대회’ 23일 개최

부산시는 23~28일 벡스코에서 제23차 국제 자동제어연맹(IFAC) 세계대회(IFAC World Congress 2026)가 열린다고 밝혔다.

IFAC 세계대회가 국내에서 열리는 것은 2008년 서울 대회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대회에는 75개국 이상에서 4400여명이 참가 등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 가운데 해외 연구자와 산업 전문가 3600여명이 부산을 찾을 예정이다.

대회 기간 세계적 석학들의 기조강연을 비롯해 학술 세션, 전시회, 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목포종합경기장에서 하계 전지훈련 중인 선수들 모습.

/목포시

목포시, 선수단 전지훈련지로 ‘각광’

육상·축구·수영 등 10개 종목
전국 5200여명 선수들 발길

목포시가 올여름 전국 각지의 선수단을 적극 유치하며 스포츠 전지훈련 명소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목포시는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하계 전지훈련 기간 동안 육상·축구·하키를 비롯해 배드민턴, 복싱, 수영, 클라이밍 등 10개 종목에서 5200여 명의 선수단이 목포를 찾아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8월에도 무더위 속에서 전국 각지 선수단의 전지훈련이 이어지며 목포의 우수한 체육시설과 훈련 여건을 알리

고 있다.

하키 종목에서는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대구과학대와 제천상고 등 2개 팀 38명이 국제축구센터 하키장을 찾아 훈련했다. 복싱은 7일부터 14일까지 한국체대, 서귀포시청 실업팀, 광주체고, 대전고 등 전국 15개 팀 200여 명이 다목적체육관에 모여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목포시청 육상팀 지도진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으로 ‘2026 육상투척 국가대표 후보선수 하계 합숙훈련’을 2년 연속 유치했다. 이에 따라 8월 12일부터 18일까지 100여 명의 선수가 목포종합경기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목포(전남광주)=이대호 기자 eogh7505@

경남도, 축산 농가 사료자금 291억 지원

융자 100%, 연 1.8% 금리 조건

경남도는 사료값 상승으로 사육이 어려워진 축산 농가를 돕기 위해 하반기 사료구매자금 291억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올해 지원 규모는 상반기 783억원을 포함해 총 1074억원으로 늘어난다.

국제 곡물 가격과 환율 변동으로 사료비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는 지난 5월에도 사료비 급등에 대응, 자금 111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상반기 지원액을

늘린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한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농가와 법인이며 신규 사료 구매와 기존 외상금 상환에 쓸 수 있다.

조건은 융자 100%, 연 1.8% 금리로 2년 거치 후 일시 상환 방식이며 농가별 한도는 축종별 사육 규모에 따라 정해진다. 선정 농가는 서류를 갖춰 11월 9일까지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부산시, ‘찾아가는 희망상담버스’ 운영

파산·회생·채무조정 현장 상담

부산 시민과 소상공인의 파산·회생·채무조정에 대한 현장 상담과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희망상담버스’가 본격 운영된다.

부산시는 19일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회생법원, BNK부산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지방법무사회 등 8개 기관과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7월 시가 발표한 약 1조3783억원 규모의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이날 협약에 따라 ‘찾아가는 희망상담버스’ 2대가 첫 운행에 나선다.

‘명량해전’ 내달 울돌목서 다시 만난다

내달 11~13일 명량대첩축제 열려

2026 명량대첩축제가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도 녹진관광지와 울돌목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 축제는 명량대첩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지역의 전통문화와 다양한 공연, 체험 프로그램을 결합해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역사문화축제로 한층 강화했다.

축제 첫째 날(9월 11일)에는 진도와 해남 21개 읍면의 주민이 참여하는 출정행렬(파레이드)을 시작으로, 승전무대(진도 녹진)에서 개막식과 함께 울돌목해상을 배경으로 한 ‘융복합 실감형 명량해전 주제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특수장치와 화포, 무인기 공연

(드론쇼) 등을 활용해 명량해전의 긴박했던 현장을 실감 나게 재현하고, 가수 김장훈의 축하공연을 더해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둘째 날(9월 12일)에는 가수 송가인, 예능 등이 출연하는 ‘명량 트로트 밤’과 화려한 해상 불꽃쇼가 펼쳐져 축제의 밤을 더욱 뜨겁게 달굴 계획이다.

축제 마지막 날(9월 13일)에는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개그맨 손현수의 빵빠레 노래방’을 운영해 관광객과 함께하는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가수 전유진, 현진우 등이 출연하는 ‘명량 트롯 한마당’을 통해 3일간의 축제를 화려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진도(전남광주)=이대호 기자